

성인 특발성 막성신병증의 치료성적 및 예후인자-단일기관 연구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병리학교실¹

이정표, 손민정, 주권욱, 김연수, 안규리, 한진석, 김성권, 이정상, 이현순¹

목적: 성인의 주요한 신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막성신병증(MN)의 임상소견과 치료반응 및 예후인자를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1987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생검에 의해 확진된 만 20세 이상의 MN 174예 중, 6개월 이상 추적이 가능하였던, 2차성 MN환자와 MN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타질환이 동반된 환자를 제외한 82예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결과:

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65개월(6-186개월)이었다. 남녀비는 45:37명이었으며, 진단 당시 나이는 49.8세(26-78세)였다. 신증후군 62명(76%), 무증상적 요이상 18명(22%), 만성 사구체신염 2명(2%)이었다. 부종은 58명(71%), 고혈압은 40명(49%), 현미경적 혈뇨는 59명(72%), 신기능이상소견(혈청 크레아티닌 >1.4mg/dl)을 보인 예는 6명(7%)에서 관찰되었다. 경과 관찰 중 10명(12.2%)은 신기능이 악화되었고(기저치에 비해 혈청 크레아티닌이 50%이상 증가), 5명(6.1%)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다. 초기 치료방법에 따라 보존적 치료군(23명), prednisolone(PD) 단독치료군(28명), cyclophosphamide(CPM) 병합 치료군(31명)으로 분류하였다. 보존적 치료군의 치료 경과는 완전관해(CR) 12명(52%), 부분 관해(PR) 3명(13%), 무반응(NR) 8명(35%)이었다. NR 환자 중에서만 3명이 신기능의 악화를 보였고, 1명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다. PD 단독치료군의 치료 경과는 CR 11명(39%), PR 2명(7%), NR 15명(54%)으로, 이 중 7명(25%)에서 재발하였다. NR(총 15명) 중 13명에서 CPM을 추가하여 치료하였고, CR 6명(43%), PR 2명(21%) NR 5명(36%)이었다. PD 단독치료군 환자 중 초기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대상 중 5명에서 신기능이 악화되었다. 초기 PD 치료 후 CPM을 병합하지 않았던 2명은 모두 신기능이 감소했으며, CPM을 추가한 환자 중 신기능이 감소한 환자는 3명(23.1%)으로, 이 중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1례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다. CPM 병합치료군의 치료 경과는 CR 20명(65%), PR 5명(16%), NR 6명(19%)이었고, PD 단독치료군과 비교하여 관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($p < 0.05$). 2명(6%)에서 재발하였다. 모두 3명(NR 중 2명, PR 중 1명)에서 신기능이 악화되었으며, 이들 중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2례는 모두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다. 예후인자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시 고혈압 유무, 24시간 요단백량의 정도, 병리소견상 국소경화의 유무, 초치료 후 관해 유무가 신기능저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.

결론: 우리나라 성인의 특발성 MN은 CPM 병합요법이 PD 단독치료에 비해 초기 관해율에 있어서 우수하였고, 진단 당시 고혈압 유무, 24시간 요단백량의 정도, 병리소견상 국소경화의 유무, 초치료 후 관해 유무가 유의한 예후인자였다.